

## 교회소식 Bekanntmachungen der Gemeinde

마인츠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ir heißen alle herzlich willkommen und segnen im Namen des Herrn.

1. 오늘은 한독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 헌금은 토마스교회를 통해 Diakonie Katastrophenhilfe mit Schwerpunkt Ukraine 으로 사용됩니다.
3. 오늘 예배 후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4.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기도로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5. 아비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고성찬, 이재화)
6. 청소년부 1일 소풍이 있습니다. 6월16일 (목) 9시30분-18시, 장소: Holiday Park.
6. 코로나 양성이 나오신 분들은 위기관리팀(이정수장로,김민성 집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Johannes 10:11 Ich bin der gute Hirte. Der gute Hirte lässt sein Leben für die Schafe.

## 섬김이

담임목사 한성호  
교육전도사 장재성  
시무장로 소병찬,이정수,이태성

## 예배 및 봉사구역

날짜	기도	안내
06.12	배형만, 고광진	
06.19	김영균	
06.26	엄명용	
07.03	김유진	

## 후원 선교지

- 키르기스스탄(다니엘 P)
- 코소보(S00)
- 독일 쾰른(N00)
- 케냐(L00)
- 베트남(L00)
- 타지키스탄(L00)
- 마다가스카르(B00)

## 온라인 헌금 안내

IBAN: DE78 5519 0000 0962  
2740 15  
BIC: MVBMD55

:: 온라인 헌금 시 입력 항목 ::  
십일조 - Zehnte  
감사헌금 - Dankopfer  
주일헌금 - (Sonntags) Kollekte  
월경헌금 - Monatskollekte  
선교헌금 - Spende f. Mission  
건축헌금 - Spende f. Kirchenbau

\*온라인 헌금은 비교란에 위 항목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Deutsch/Koreanischer Gottesdienst

## 한독 연합 예배

12. Juni. 2022

제37권 24호

### :: 예배의 부름 ::

전주 Orgelvorspiel	.....	Timea Jazayeri
기원송 Eingangsglied	.....	한국 성가대
인사 Begrüßung	.....	Herr Kneisel / 이재현집사
찬송 Loblied	..... 21 장 1-3절	다함께
성시 Psalm	..... 시편 113편	Herr Kneisel / 장은준집사
찬양 Musikalisches Intermezzo durch Flötenensemble	.....	Flötenensemble
기원 Eingangsgebet	.....	한성호목사
성경봉독 Schriftlesung	..... 로마서 11: 33-36	Herr Kneisel / 김윤정집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다함께

### :: 선포와 간구 ::

찬양 Chor	.....	한국 성가대
설교 Predigt	.....	Stefan Burkhardt 목사
찬송 Kirchenlied	..... 66 장 1-3절	다함께
중보기도 Fürbitten	.....	Herr Kneisel / 배형만집사/ 다함께 : Ukrainisches Kyrie Frau EBlinger / 고광진집사
주기도문 Vaterunser	.....	다함께

### :: 축복과 파송 ::

찬양 Flötenensemble	.....	Flötenensemble
광고 Abkündigungen	.....	Herr Kneisel / 소병찬장로
찬양 Chor	.....	한국 성가대
축도 Segen	.....	Stefan Burkhardt 목사 / 한성호 목사
후주 Nachspiel	.....	Flötenensemble

## 21장 다 찬양하여라

1. 다찬양하여라 전능왕창조의주 계 내혼이주찬양 평강과구원의주 님  
 2. 다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주 계 포근한 날개 밑 들끓어 주시는주 님  
 3. 다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바 쳐 이 세상 만물이 주앞에 다 나와 찬 양

성도들 아 주앞에 이제나 와 즐겁게 찬양하여 라  
 성도들 아 주님의 뜻안에 서 네소원 다이루 리 라 아 멘  
 성도들 아 기쁘게 소리높 여 영원히 찬양하여 라 아 멘

## 성사: 시편 113편

- 1 할렐루야, 여호와와 종들이 찬양하라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라
- 2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할지라도
- 3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도다
- 4 여호와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 5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 6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 7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
- 8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 9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데다 할렐루야

## 성경봉독: 로마서 11:33-36

- 11: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 11: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 11:35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겠느냐
-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 66장 다 감사드리세

1. 다 감사드리 세 온 맘을 주께바 쳐그섭리놀라워 온 세상기 빼 하 네  
 2. 사랑의하나 님 언 제나 함께 제 서기쁨과평화의복 내려주소 서  
 3. 감사와찬송 을 다 주께 드리어 라저높은곳에서 다 스리시 는 주 님

에부터 주신 복한 없 는그 사 랑선 물로주시 네이제와 영원 히  
 몸과말 병들 때에 헤 로지 키 사이 세상악 에 서구하여 주소 서  
 영원한 하나 님다경 배하 여 라전 에도이제 도장래도 영원 히아멘

## 중보기도

### 토마스 교회를 위한 기도 - Herr Joachim Kneisel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토마스교회는 변화를 겪게됩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더 작아졌습니다. 섬기시는 분들의 나이도 많아졌고, 소수에게 많은 책임감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제 우리의 이웃 교회인 멜란히톤(Melanchton)교회와 Oberstadt에서 하나의 교회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형통하게 하소서. (시 118:25) 토마스교인들과 멜란히톤 교인들을 성령으로 채우소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하시고, 서로를 위하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그들 안에 함께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을 부어주소서. 마인츠 중앙교회와의 수년간의 우정과 같이 저희 교회의 소중한 것들도 잘 간직하게 하소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토마스교회 교인들도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변화를 겪는데에는 작별도 있습니다. 토마스교회 안에서 지나간 일들로 슬퍼하지 말고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날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베를리너(Berliner) 지역, 그리고 다른 많은 지역에도 주님의 축복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교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이 나서서 다른 이들을 돕고 본이 되어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 독일교회와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 Frau EBlinger

독일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오순절에 우리는 주님의 부름심을 들었고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오해와 다툼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되어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소서.

\*중보기도시 한 사람의 기도가 끝나면 Ukraiisches Kyrie 를 함께 찬송해 주세요.

의미: Kyrie eleison : „Herr, erbarme dich!“: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Ky-ri-e e - lei-son, Ky-ri-e e - lei-son,  
 Ky-ri-e e - le - - i - son.



## 본문: 로마서 11:33-36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아멘.

“엄마.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생기셨어요? 한번 만나보신 적 있어요?” 라고 다섯 살짜리 딸아이가 호기심에 꼭 차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기셨을지 도무지 상상도 못해 봤는 걸”. 엄마는 약간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십니까? 백발과 수염으로 뒤덮인 할아버지? 혹은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이 거의 닿을 듯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성시스티나 성당의 천정 벽화를 연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형태로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표현 불가능한 바를 표현해보려는 매우 딱한 시도에 불과할 테니까요.

이번 주일은 삼위일체 축일(Trinitatisfest)로 지킵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trinitas 와 그리스어 Trias에서 왔는데 “삼위” 혹은 “삼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 부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이심을 믿습니다.

얼마전 저는 윌리엄 폴 영의 소설 “오두막”을 읽었습니다.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른 한 아버지가 오두막집에서 하나님과 한 주말을 보내는 내용이지요. 작가는 이 소설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채롭고도 절박하게 표현해 냅니다.

이 책 표지 안쪽 안내문에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시지요.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키가 크고 다정한 흑인여자로, 중동 지역의 한 느긋한 목수로 또한 다감하고 좀 수줍어 보이는 동양여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하리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책을 꼭 읽어 보시기를 전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미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으로 정해진 로마서 11장은 바로 이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그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조금 전 우리는 독일어와 한국어로 들었습니다만 기억을 돕기 위해서 길지 않으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 말하려면 우리는 금세 인간 언어의 한계에 도달하고 맙니다. 우리의 모든 표현력은 접근일 뿐이요 더듬어보는 시도이며, 가능할 수 없는 실제에 대한 짐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겸손하고 주의를 집중하며 경허해야 할 뿐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큰 단락 중에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복음과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 심지어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과연 어찌되는 것인지, 바울은 심각하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돌판은 다 무산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을 거두시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은 마지막 때에 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고 그리하여 그의 고민은 찬송으로 승화합니다.

이제 본문의 구절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들과 우리들의 삶이 이를 힘차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창 4:4)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입니까? 납득되지 않고 이해불가합니다.

제 동생과 저는 12년 전 같은 의사에게 척추수술을 받았습니다. 제 동생은 여태 전혀 문제없이 걸어다니고있고 저는 지금까지 허리통증에 시달리고, 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왜? 알 수 없습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 여기에 답은 오직 하나: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35절: “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겠느냐 “** 이곳 역시 답은 즉시 튀어나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이미 하나님께서 옴에게 폭풍가운데서 답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욘 41: 10-11)**

이래도 숙명론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위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주를 잡고 계십니다. 그 분이 통찰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같은 날,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추악한 전쟁은 분명히 끝날 것이며 악이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원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크시고 접근하기 어려운 하나님은 또한 아주 가까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체험할 수 있는 분이시지요 : 우리 교회의 어느 제직회의 때를 떠올립니다. 토론은 열정적이었고 의견은 상당히 투쟁적이었지요. 그러다 갑자기 -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 -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바로 안이 체결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불현듯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라고 하자 “저도 느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놀랄 뿐이었습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고민 끝에 결국 관점의 전환, 즉 찬송에 이르게 됩니다. 찬송은 두려움과 의혹을 물리치는 힘을 줍니다. 인간이 항상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이 자연의 기분에 의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의혹이나 실패 가운데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로 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생의 모든 실수와 부족함까지 보듬어줄 수 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길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에게 열려 있는 소망의 등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복을 기원합니다.